
수학 콘서트 KAOS 1st
「유리알 유희」

가을밤 콘서트로 만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새플리의 이론!

결혼 상대와 직장,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때, 안정적인 선택 방법이 존재할까? 정답은 바로 수학 속에 있다.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이드 새플리와 데이비드 게일 교수가 함께 만든 게일-새플리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수많은 선택 속에 방향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짝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수학은 골치 아픈 학문이 아니라 인생의 힘이 되는 날개가 아닐지. 이 가을, 나를 둘러싼 알고리즘을 만나 수학의 유희 속으로 빠져보자!

일시 : 2012. 11. 28.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인터파크 아트센터 (합정역 소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90)

주최 : 인터파크

후원 : 2014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입장료 : 무료 (단, 사전신청자에 한함)

※ 참석하시는 모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가대상 : 중·고등학생·교사·학부모·일반인·대학생 약 300명

참가신청 마감일 : 2012. 11. 15. 까지 (선착순 마감 예정)

※ 참가신청 방법 : 참가를 원하는 분은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basic@interpark.com 로 11. 15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 성함 옆에 '대표'라고 표기 부탁드립니다.

※ 콘서트 전에 확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인터파크 (정유진 대리, basic@interpark.com, 02-6004-6882)

프로그램

순서	출연자	내용
1. 소개	박형주(포항공과대학교)	유리알 유희의 의미와 노벨경제학상
2. 주제 강연	김민형(옥스퍼드대학교)	수학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3. 토론	박형주(포항공과대학교) 김민형(옥스퍼드대학교) 청중 대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알고리즘 찾아보기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연자

- **초청자 <수학자 김민형>** 옥스퍼드대학교 수학과 정교수이자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로 현대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 일반화된 '정수계수 다항식의 해가 되는 유리수'를 찾기 위해 전혀 다른 분야인 위상수학적 방법론을 도입해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았다.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메세추세츠공과대학, 퍼듀대학교 등을 거친 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를 역임하고, 2010년 포항공과대학교 연산 석좌교수로 추대되며 포항공과대학교에 초빙됐다. 특히 2011년 9월 국내 수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교수로 임용되며 화제를 모았고, 2012년 호암과학상을 수상했다. 수학과 대중간의 소통의 장으로서 "Math Foundation" 설립을 꿈꾸고 있다.
- **사회자 <수학자 박형주>**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주임교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대수기하학을 주로 연구했다. 오클랜드대학교 수학과 교수,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와 대한수학회 국제 이사를 지냈다.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ICM) 유치위원장으로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ICM)를 서울에 유치시켰고, 현재는 조직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BS <생명의 디자인>에서 진행을 맡았고, <한겨레>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수학과 과학을 주제로 세상과 소통하고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KAOS(Knowledge Awake On Stage)

- 수학과 과학을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기 위해 다가가는 콘서트. 2014년 세계수학자대회(ICM) 조직위원장 박형주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서, 매회 각 분야 저명 인사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눈다. 수학과 과학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과학적·합리적 사고방식을 확산하는 동시에 자연과학과 다른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 유리알 유희(The Glass Bead Game)

-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명으로, 수학과 음악 등 인류 정신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유리알 유희'를 통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려 했던 주인공의 삶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스터 루디(Magister Ludi)'는 라틴어 어원을 가진 '놀이하다'라는 뜻으로, 유희의 명인에게 주어지는 존칭이다. 수학콘서트 KAOS는 어려운 수학을 놀이처럼 풀어내고, 대중과 교감하자는 의미에서 '유리알 유희'라는 타이틀로 그 첫 번째 문을 연다.